

한국교회 분열의

신학적 배경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장 부 영

1. 교회분열의 원인

(1) 피선교적 상황

- ① 보수주의적 선교
- ② 자유주의에의 오염

(2) 교회분열의 원인

2. 교회분열의 신학적 배경

(1) 교회분열의 경조

- ① 과도기적 상황
- ② 교회분열의 적 신호

(2) 교회의 3대 분열

- ① 제1차 분열
- ② 제2차 분열
- ③ 제3차 분열

3. 결 론

1. 교회분열의 원인

(1) 피선교적 상황

① 보수주의적 선교

한국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① 이는 한국교회가 극히 보수주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윤성범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철두철미하게 소위 구리파에서 말하는 정통주의(보수주의 근본주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추궁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그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언더우드(H.G. Underwood) 목사와 아펜젤러(H.G. Appenzeller) 목사에 의하여 1885년 한국에 공식으로 들어온 이래 어떠한 종류의 신앙형태가 형성되었는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바가 있다”고 했다. ④

또 유동식 교수는 “복음을 받아들이던 한국의 유교적 바탕의 작용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게 이해되고 강요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종교의식과 윤리적 구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그러나 한국교회사학자 김양선 교수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철두철미한 청교도 신앙사상과 방불하였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러므로 이 선교사들의 신앙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영계 길선주목사 역시도 극히 보수적인 신앙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⑥ 이것은 최초 선교사들의 신학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교회가 극단의 보수주의 신학사상에 갇혀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요 한국선교의 대인물인 마포삼델 박사는 회년기념예배석상에서 “사도바울이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외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⑦고 한 것을 보아서도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을서 박사는 “성경의 문자나 절구를 고친다든지 그 의미를 굽힌다든지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아 말했다. ⑧ 또 숭실대학의 창설자 배위량 박사는 학생들에게 성경보다 영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완전히 죄라고 경고한 것 ⑨ 등은 보수주의 성경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吉川文太郎씨는 적어도 1907년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니쓰벳트 부처의 선교 역시 건전한 포교라고 논평했으며 ⑩ 부라운(A.J. Brown)박사는 적어도 1911년까지의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을 전형적인 보수신학으로 논평하고 있다. ⑪ 그는 처음 25년간 전형적 선교사들은 Puritan style이었으며 고등비평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고 분석했다. ⑫

더욱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1896년에 채택된 신학교육의 이념은 더욱 한국장로교회의 보수주의적 定礎를 잘 말해 주고 있다. ⑬

간하베(Harvie Conn) 선교사는 그의 “한국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브라운(A.J. Brown) 박사의 논평을 보충하며 말하기를 “動機에 의한 것이건 교육에 의한 것이건 간에 선교사들의 신학적 지도 정신은 강력하게 보수주의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⑭ 당시 유교적 바탕위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변했다고 보는 유동식 교수에 반

하여 김양선 교수는 오히려 초대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은 매우 단순하고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수천년 동안 한국민족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유교의 형식주의와 불교의 미망을 깨뜨려 버리고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매우 용이하고 튼튼하게 건설하게 된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⑤ 이렇게 한국 초대 교회 역사는 보수주의적 복음주의의 기독교 역사임이 틀림없다. ⑥

② 자유주의의 오염

그러나 타락된 세계에 있어서 역사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보수주의의 튼튼한 보루위에 건설된 한국교회도 자유주의의 오염으로 경종이 울린 교회사의 흔적이 처음 보인 것은 1917년 총회의 결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타신학을 졸업한 지에 대한 총회의 규정사실이 있었다. ⑦ 이것은 벌써 한국 교역자들중에 독일이나 일본등에 유학한 사람들이 있어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을 염려하여 취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⑧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자유주의는 다른 면에 사람에게서 가 아니라 처음 선교를 받았던 선교사에게서 침투되어 배물기 시작하였다.

1918년 7월 조선기독교회의 “김장호 목사의 정적처분”에서 급기야 자유주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⑨ 이 자유주의 신학사상이란 모세의 오경의 모세 저작론문제에 관련된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사상으로 미국 선교사 공위랑(W.C. Kerr)을 통하여 김장호 목사에게 오염된 것이다.

김장호 목사는 1914년 평신(平神)출산이고 공위랑은 주후 1912년 9월 1일 상오 10시 30분에 개최된 예수교 장노회 조선총회

제1회 총회(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황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다. ⑩

그러고 보면 브라운(A.J. Brown) 박사의 말과 같이 1911년까지 파송된 선교사는 전형적 신학사상을 가진 보수주의자였다면 ⑪ 그후 즉 1912년 이후의 선교사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공위랑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음은 충분한 답답이 가지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는 벌써 1912년까지 보급되어 선교사들에 의하여 오염되어서 이미 1917년 김장호 목사와 같은 환자가 발병되어 국부적으로 많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회분열의 원인

교회는 ① 지방적 ② 정치적 ③ 신학적 요인에 따라서 분리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 세가지 요인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중 하나가 교회분리의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 세가지 교회분열의 요인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신학적인 원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점에 치명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자기 고집을 지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경멸한다. 심일섭 목사는 그의 「한국신학 형성사 서설」이란 논문에서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중 역시 신학적인 원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했다. ⑫

그러나 민경배 교수는 비신학적 요소를 중시하고 실존주의 신학원리를 적용 교회분열의 신학적 원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박하고 있다. ⑬

박선희 목사 역시 교회분열의 원인은 순전히 인간적·요성

서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아니며 교리적 신앙적인 이유들은 분열의 자기고집을 교수 변명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㉔ 그리고 홍현설 교수는 “교리와 신학문제들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이 사실상 하나의 위장된 교편투쟁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지칭 정통주의 교수자로 지적하는 사람들의 열렬 논쟁에도 많은 구실과 위선이 있다고 논박했다. ^㉕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의 저명한 역사신학자 김의환 박사는 그의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란 논문에서 시종일관 교회분열의 종배한 원인을 신학사상의 투쟁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 직접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 선교사들의 모교인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의 신학사상의 분쟁으로부터, 박형룡 김재준 양 교수의 신학논쟁이 한국교회에 미친 분열의 영향, W.C.C.와 N.A.E.간의 신학적 분쟁 등 한국교회사의 역사적 산증거를 들어 역설하고 있다. ^㉖

2. 교회분열의 신학적 배경

(1) 교회분열의 징조

한국교회의 분열은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대두로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① 과도기적 상황

1896년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결정된 산학교육의 원칙을 살펴보면 그 결론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함으로써 한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는 이 순수한 Puritan적 신앙과 신학사상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계승되어 초기 한국인 신학자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는 김선주목사의 신학사상 역시, 천당, 지옥, 원

죄, 성서적지영감을 골자로 하는 전형적 근본주의 신학이었고 오래동안 이 신학사상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㉗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이 지배할 때는 교회에 분열이 없었으며 당시 부흥발전에로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1911년 서울 연회전문학교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압암리에 조성돼 있던 남북간의 지방적 대립이 묘하게도 보수와 진보의 상위한 신학적 대립으로 발전돼 가고 있었으며 더구나 회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과 구미에서 고등교육 내지 신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신학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한국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교회의 신학적 배경의 이식성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회가 좌경되어 정통신앙을 사수하고자고 외치면 선교사들이 대부분 북장로교회를 떠났거나 자유주의 신학의 침략앞에 패잔병과 같이 무장을 해제 하고 조용히 시들어 갔던 것이다^㉘.

북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유일한 보수주의 신학의 보루로 1930년대까지 건재해오던 프린스턴(Princeton)신학이 1920년 교수진의 개편으로 점차 좌경되어 그 뒤에 프린스턴(Princeton)에 유학갔던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귀국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㉙ 결국 한국교회의 분열의 싸움은 자유주의 신학으로써 불씨를 안겨준 미국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은 한국교회 앞에 내놓을만한 학적 이론 발표가 없었던, 교회분열의 요인이 되는 자유주의 신학의 과도기적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가나나 선교회의 본국교회가 자유주의적인 감리교회와 통합하여 연합교회로 바뀌자 이 영향은 한국교회에까지 미

쳐 이들이 주재하는 1926년의 함흥교역자 수양회는 일대 혼란을 빚었으며 영재형(Young) 선교사와 롬아력(羅亞力: Robt) 선교사는 동선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더욱 간도에서 선교하던 스코트(Scott) 선교사가 회장이 되면서 급진적으로 자유주의 화 되갔으며 미국서 자유주의 신학을 수학하고 귀국한 김관식, 조희범 등 한국목사들의 합세로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 보급에 박차를 가하므로 교회분열에 촉진제의 역할을 신나게 다하고 있었다. ㉔ 특히 한국교회 교역자들을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전향시키기 위한 세뇌교육집회가 계속되는 중 정통주의 신학을 공격하는 강사를 장도원 목사가 강단에서 끌어 내렸고 이 원균 한기춘 등은 강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성경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가르친 조희범 목사를 반격하는 등 수양회는 일대 수라장을 이루고 말았다. ㉕ 이러한 수양회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신학 사상의 상위점에 점화된 불씨가 원인이며 이 신학사상의 싸움은 결국 교회분열이라는 비참한 행동싸움으로 발전되게 마련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웃것을 여미고 조용히 자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분열의 기독교 윤리적 책임이 전혀 평신도들에게 있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목자가 그 지도력을 상실할 때 양들이 흩어지는 혼란이 일어나며 각기 “제 성격”에 맞는 목사들을 따라 사분오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의 분열이 교회분열의 치명적인 쇼크가 된다면 교직자들의 분열원인을 캐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교직자들의 분열은 위의 여러 예들을 본다 하더라도 교역자들간의 신학적 사상의 상위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학사상의 상위점에서 도화된 교회분열의 싸움은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분열이 계속되는 한 한국교회는 자체 내에서 진통을 겪게 되는 동시에 교회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② 교회분열의 적신폭

교회분열의 요인을 신학적 입장에서 관찰할 때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의 기수인 박형룡 박사와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인 김재준 교수와의 신학적 논쟁은 한국교회 분열의 적신폭(赤信號)가 아닐 수 없다. 이 양 교수간의 자유와 보수 두 신학의 충돌은 1934년 1월에 발표된 신학지남의 권두언을 계기로 일어났다.

김교수는 한국의 신학교육의 방법론이 단일하고도 고루한 전통 신학과 고정된 사문의 교리항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데 그치고 있다고 공격하고 사상 아닌 사물이 교수 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논문인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에서 축자영감을 반박하는 글을 과감하게 신학지남에 투고하기까지 했다. ㉖

또 그는 「한국교회에서 교수되는 신학사상이란 것은 소위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고정적이며 불상화한 “조건”들이었고 하나의 “물건”이요 인격적 결단을 통한 “사상”일 수가 없다고 했다. ㉗ 이 당시의 신학사상에 관한 잡다한 군쟁들에 대하여 박형룡 박사의 증언을 들어본다. 「나는 그때 간행된 몇종류의 종교잡지와 역사(譯書)를 섭렵(涉獵)하고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기저 가치가 자유롭게 발표된 것을 발견하였다. 성경의 고등비평과 성경의 유오(有誤)를 역설하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신성(神性), 십자가대속, 재림, 그리고 내세의 상벌을 부정하

는 문장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열되었던 것이다. 그중에 한국 교회의 정통신자들을 비난하는 문장으로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 ㉔ 이러한 잡다한 사상들의 배경이 김재준·교수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의로운 존재만은 아니었다. 신신학의 물결은 채필근 목사가 기독교신보에 “변증론적 신학”을 4회에 걸쳐 연재하던 1932년대에 벌써 하나의 조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㉕ 이에 반하여 박형룡 박사는 한국교회 신학이란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의 “창작”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정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이라고 믿고 성경무오설과 축지영감설에 토틈히 서서 성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단죄하고 1935년 5월 이후로는 김재준 목사의 글을 신학지남에 더 이상 실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㉖ 박박사는 19세기의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신정통주의인 밸트주의도 역시 정통주의 신학과 상관이 없는 자유주의라고 논파했다.

이러한 보수와 자유의 신학사상적 대립은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적 구부적 대립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일본 유학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적지 않은 신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간의 대립으로 한국의 신학관도에 금이 가게 했던 것이다. ㉗ 이러한 사상적 대결을 배경으로 1934년과 1935년의 장로교 총회는 심각한 신학적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1934년과 1935년도의 한국장로교회 총회 때에 적어도 한명 이상이 되는 선교사인 주석가가 교회 분열이 임박하였다고 암시하리만큼 신학적 대립은 교회 분열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다. ㉘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남쪽파와 북쪽파의 지방적 분파주의는 현대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한 신학사상적 대립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주의(자유주의)의 정체가 서서히 들어나면서 1934년 제23회 총회는

자유 보수간의 신학적 싸움이 열전으로 변하여 노골화됨으로 한국교회의 분열의 경중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신학적 싸움이 전교회적으로 파급되어 교회분열의 필연적 운명의 길로 흘러들릴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대두된 문제의 사건들은 창세기 저작권문제, 교회안의 여권문제, 적극교단, 아빙돈 단권주석, 기독교신보 문제들이었다. ㉙

(2) 교회의 3대분열

① 제1차 교회분열

한국장로교 안에 첫번째 분리는 1952년 9월 11일 전주 성남 교회당에서의 고려파의 분립이었다. ㉚ 이 교단의 지도자인 한상동 목사는 “출옥성도”로써 부산에 내려와서 주남선 목사와의 손잡고 1946년 9월 20일 박윤선목사를 교장으로 고려신학교를 시작했다. ㉛ 그러나 1947년 10월 14일 박형룡박사가 교신의 교장으로 취임했을 때 서울에 이미 존재해 있는 김재준교수가 몸담고 있는 조선신학교의 ㉜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하기 위하여 포진하는데 전략적인 의견차이로 부산 고려신학교에서는 내부적인 진통을 겪게 되었다. 결국 박형룡박사는 1948년 4월 고려신학교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그 후 장로회신학교를 시작했다. ㉝ 이 사태는 점점 발전되어 한상동 목사는 경남노회를 탈퇴하고 1951년 3월에 경남법통노회를 조직하였으며 1952년 9월에 결국 고려파 총회가 분립 구성된 것이다. ㉞

그런데 이 제1차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각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을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감이 없지 않다. 우선 이 교단의 지도자들은 극단의 보수주의 신학을 견지했고 그들이 생 각하기를 W.C.C.운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했던 것이고

진사람에 문제가 있어서 “성스러운 고지세”를 취하고 있었다. ㉔ 그러나 김양선 교수는 1952년의 고신파(高神派)분립은 한국장로 교회가 처음부터 지켰었던 전통적인 보수주의 신학과 교리적 하 등의 차이가 없으며 신사람에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것은 하나의 주도권 쟁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㉕ 이어 서 그는 고려파의 분립은 그 책임소재를 물을 것 없이 한국 교회가 범한 가장 큰 과오중의 하나라고 통탄했다. ㉖ 이에 대하여 고신측은 현재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본장로회의 정신을 떠나서 이교파적으로 흐르므로 이를 바로잡아 참된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제정하기 위하여 총노회를 조직한다. ㉗ 고 교단 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② 제2차 교회분열

한국 장로교회의 두번째 분열은 대한 기독교 장로회의 창설로 된 것이다. ㉘ 보수주의 신학의 보루였던 영양신학교가 38선의 분단으로 인하여 분리되자 남한 교회는 김재준교수 일인의 독무대가 되어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치기 시작했으며 더구나 1949년 10월 22일 존·에이 매카이(John. A. Macky) 박사와 에밀 브룬너(E. Brunner) 박사의 내한을 계기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열린 제36회 총회에서 장로회 신학교와 조선신학교의 양신학교에 대한 총회직영 문제를 둘러싸고 총회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혼란이 일어나 부득불 정회하기에 이르렀다. 1951년 5월 26일 부산 중앙교회서 제36회 총회가 속개되었는데 이때는 벌써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간의 분열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뚜

렷해졌다. ㉙ 총회는 양 신학교의 총회 직영을 취소하고 총회신학교를 따로 설립하자는 가결로 1951년 9월 18일 대구에서 감부열 선교사의 교수 박형통 명신홍 권세열 김치신 한경적 제서를 모시고 개교 했으나 조선신학교는 끝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㉚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제37회 총회가 모여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한 속청을 단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한 자유주의 계열의 교역자들이 동년 9월 17일 대구 남산교회에서 호헌대회를 열어 총회결의의 비법성을 지적하였다. ㉛ 결국 총회내에서의 대세 만회가 불가능함을 알자 1953년 6월 10일 서울 한국신학대학(전 조선신학교) 강당에 모여 “법통총회”란 이름하에 제38회 총회를 속개한 다음 “대한 기독교 장로회”를 창설한 것이다. ㉜ 그런데 이 제2차 분열은 한국 교회 분열사상 가장 큰 신학싸움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김재준 교수의 미드필드(Midfield)에서 혼전을 계속하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의 결승전은 제37회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의 면직 처분으로 끝인하여 박형통박사의 보수주의 승리를 선언함으로 일단락 짓게 된 것이다. 이 분열은 한국교회 사상 가장 명예롭지 못하고 가장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분열인데 교회사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분열의 책임을 김재준교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김양선 교수는 “만일 김재준 교수가 계속적으로 보수주의 신학을 강렬히 비난하지 않았다면 금일과 같은 장로교회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㉝ “라고 단언했으며 한결 음 더 나가서 김의환교수는 김재준 교수의 양심에 화살을 던짐과 동시에 한국교회가 정신차리고 앞으로는 신앙양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 그 분열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를 처단한 총회의 교권에 있는가?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치단한 교련 난무(亂舞)도 허다하게 분다. 그렇다고 분열의 책임을 수적다수를 점하는 교련 남용에 서만 찾을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분열의 책임은 사도적 교리에서 떠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릇된 신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신학자라면 자기 신학입장을 솔직히 (양심적으로) 밝히고 그 소속교회에서 교회분열을 막기 위하여 나와야 하는데 김재준 교수는 이렇게 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박형룡 박사와의 신학논쟁 중 여러 차례의 의중보류(意中保留—Mental reservation)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 오늘의 기장에 속해 있는 호남과 영남의 많은 교회들이 결집로 불게된 것이라고 통박하고 오늘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이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교단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㉔

㉕ 제3차 교회분열

이렇게 하여 총회는 끈덕지게 벌려왔던 자유주의와의 투쟁을 일단 성공적으로 끝냈으나 숨들릴 사이도 없이 몰릴듯이 닥치는 국제적인 자유주의의 도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회는 이미 벗고 있던 북장로교회와 W.C.C.C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서둘러야만 할 운명에 부딪친 것이다.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모인 W.C.C.C.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던 김현정(金顯鼎) 목사와 명신홍(明信弘) 목사 사이에 서로 상이한 귀국보고를 했고 이에 대하여 총회는 W.C.C.C. 연수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경직 안광국 전필순 유호준 황은균 박형룡 정규오 등 제시를 임명하여 연구 보고케 했으나 여기서도 상반된 견해차이로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1958년 제43회 총회를 맞게 되었다. ㉕ 이 문제는 급기야 총회

밖으로 확대되어 전국 교회에 파급되었으며 W.C.C.C. 문제를 놓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찬반운동의 혼전의 위기를 조성하고야 말았다. 1959년 8월 7일 날짜로 호남지구 남장로교 선교구역 안에 있는 10노회(충남 대전 군산 김제 전서 전북 전남 순천 목포 제주)가 예규메니칼운동 반대 W.C.C.C. 탈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 노회들이 W.C.C.C. 탈퇴 건의를 총회에 제출하는 등 교회의 분열의 불안을 안고 드디어 1959년 9월 24일 제44회 총회가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된 것이다. ㉖ 이 총회에서 결국 W.C.C.C.노선을 택한 교회들과 N.A.E.노선을 택한 교회들이 이별(분열)의 비극을 연출하고자 만 것이다. W.C.C.C.문제로 정회한 후 W.C.C.C.를 지지하는 총대들은 28일 서울 연동교회로 올라와서 자기들대로의 총회를 속개했고 W.C.C.C.를 반대하는 총대들은 11월 24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속개하고 W.C.C.C. 탈방을 결의했던 것이다. ㉗

이로써 연동측(통합총회)과 승동측(합동총회)로 완전히 갈라져서 한국 교회사상 제3차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여기서는 W.C.C.C.가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면관계상 상세한 내력은 약하려고 한다.

교회의 합동운동

한국교회가 합동투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교인으로서 동일한 염원이라고 하겠다.

교회분열의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지도에 관한 성직자로서의 인격적 결함을 들 수 있다. 지나친 속단일지 모르나 한 마디로 말하면 "주의 중"의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리더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사상의 상위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의 정의에 대한 개념상의 전제에는 자유 보수 간의 팽창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신학에 대한 보수주의적 전제는 신앙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신학과 신앙은 상호 구별되면서도 상호간의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상관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학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제는 신학은 신앙과는 엄연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즉 신학의 통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신학과 신앙이 하나되기를 바라는 것은 봉건주의적이며 유교적 사상의 협소한 편견의 유물이라고 한다.^⑧

다시 말하면 복음적 근본진리와 문화적인 이해는 갈을 수 없으며 교회분열은 복음의 근본진리의 차이에 서라기 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⑨ 전제하고 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신학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동이 될 수 있다는^⑩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신학을 하나의 일반학문의 분야와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학문은 그 소스(Source)가 자연 인간,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실존적 인간의 이성에서 인출되지만 참된 신학이라면 그 소스(Source)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 무오한 진리인 성경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그 근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다.^⑪

자유주의자들이 또 한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다. 신학을 하나의 신앙에 대한 문화적 표현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은 신앙에 대한 정신적(사상적) 표현이란 점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학을 신앙의 결과만을 묘사하는 언어 민족 지방 시대 등 하나의 도구(문화)로만 생각할 뿐 신앙의 정신(생명)적 표현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술로는 신앙을 말하면서 마음은 편곳에 있어도 괜찮다는

위선적(의식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라?^⑫ 신앙은 보수와고 신학은 자유라는 공식은 전혀 이율배반적인 비진리이다.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께 주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재림하실 것을 고백해 놓고 신학으로는 이것들을 모조리 부인하는 데는 어찌 하려는가? 물론 여기서 신학의 지엄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서는 안된다.^⑬ 여기서 우리는 교회분열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교회분리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실행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원리 위에 분열된 우리 한국교회의 합동작업을 확실히 진행시켜 나아가야만 될 줄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는 외국교회가 격었던 신학적 논쟁의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각한 신학논쟁으로 인한 교회분열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외국교회가 겪은 교회분열이라는 쓰라린 경험 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숙한 自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Foot Notes

- 1) 김의환 : 도전받는 보수신학 p. 49.
- 김양진 : 한국기독교교회방 10년사 p. 196.
- 김하배 : "한국장로교신학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상 제 15권 제 11호 p. 94.

- 2) 기독교사상 제15권 제11호 p. 94.
- 3) 윤성범 : 기독교와 한국사상 p. 240.
- 4) Idem.
- 5) 유동식 : 한국종교와 기독교 p. 26.
- 6) 김양선 : op. cit., pp. 173~176.
- 7) 김득황 : 한국종교사 p. 410.
- 8) 김양선 : op. cit., p. 173.
- 9) Ibid p. 174.
- 9) Idem.
- 10) 古川文太郎 : 조선제종교 p. 231.
- 11) 신학지남 제33권 제3집 p. 22.
(A. T. Brown The Mithory of the Far East p. 540)
- 12) 신학지남 제33권 제3집 p. 22.
- 13) 김의환 : op. cit. p. 51.
김양선 : op. cit. p. 174.
- 14) 신학지남 제33권 제3집 p. 22.
- 15) 김양선 : op. cit. p. 176.
- 16) 신학지남 제33권 제3집 p. 21.
- 17) 민경배 : 한국교회사 p. 308.
- 18) Idem.
- 19)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下, pp. 39, 151, 160.
-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60년사 p. 18, 아소교장로회 연감 p. 116.
- 21) 신학지남 제33권 제3집 p. 22
- 22) 기독교사상 제 권 제11호 pp. 98~100
- 23) 복된 말씀 제20권 제7호 p. 6
- 24) Ibid 제16권 제2호 p. 14
- 25) Korea Struggles of Christ p. 22
- 26) 김의환 : op. cit. pp. 54, 82, 92, 66
- 27) 김양선 : 한국교회사 연구 p. 169
- 28) Idem
- 29) 김의환 : op. cit. p. 54
- 30) Idem
- 31) Ibid. p. 55
- 32) Ibid p. 56
- 33) 민경배 : op. cit. p. 309
- 34) Ibid. p. 31

- 35) Ibid. p. 29
- 36) 민경배 : op. cit. p. 309
- 37) Idem
- 38) 김의환 : op. cit. p. 33
- 39) 신학지남 op. cit. p. 33
- 40) 신학지남 제31권 제1집. "한국교회의 자유주의 신학" 민경배 op. cit. p. 310
- 41) Bong Rin Ro "Division and Reuni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59~1968 (Dr. of Th. Dissertation) p. 34
- 42) 민경배 : op. cit. pp. 344~345
- 43) 1940년 서울 순교교회당에 하층에서 설립
- 44) 김의환 : op. cit. p. 84 1948. 6
- 45) Bong Rin Ro op. cit. p. 34
- 46) Ibid. pp. 34~35
- 47) 김양선 :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p. 164
- 48) Idem
- 49) 대한예수교장로 총회 60년 약사 p. 46
- 50) Bong Rin Ro op. cit. p. 36
- 51) 김의환 : op. cit. p. 85
- 52) Ibid. p. 86
- 53) Idem
- 54) Ibid. p. 86 김양선 : op. cit. p. 227
- 55) 김양선 : op. cit. p. 197
- 56) 김의환 : op. cit. pp. 87, 88
- 57) Ibid. pp. 87, 88
- 58) Ibid. pp. 90, 91
- 59) Ibid. p. 91
- 60) 복된말씀 : 제20권 제7호 p. 22
- 61) Idem
- 62) Idem
- 63) 신학의 지엽적인 요소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근간(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경적원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임.
- 64) 이사야 29 : 13 참조
- 65) Calvin Institutes IV. 1 : 12
Klas Ruma op. cit. p. 110